

초실감 콘텐츠 선도도시 '우뚝'

과기부·전북도·익산시 주최, 일상생활 속 유용한 기술로 자리잡아

익산시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휴로그램(XR) 분야의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초실감 콘텐츠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XR(Extended Reality) 산업은 휴로그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 분야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일상생활에 유용한 기술들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산시는 휴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와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의 온 해 추진한 성과보고회를 9일 웨스턴리아프호텔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신사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



관람객이 참여해 휴로그램을 일반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인식 시킬 수 있었던 사례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휴로그램 제품이나 콘텐츠를 지역 대표 산업과 융합해 일상생활 속 시민 참여를 유도해 기술 발전을 이끄는 리빙랩 사업 서비스 확대는 만·관·학 전문가들에게 기술 실용화 전략으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보석분야에서 이동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휴로그램으로 보석을 구현하여 판매자가 보석을 직접 가져 오지 않아도 구매자가 휴로그램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석 마케팅에 새바탕을 더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로 글로벌 농생명 바이오신업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린바이오의 이해' 특강

익산시, 범시민공감대로 농생명바이오 허브 '도약'

익산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로 글로벌 농생명 바이오신업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시는 공무원 및 농민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 교육관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부장인 박수철 박사의 '그린바이오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수철 박사는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유전정보 전체), 식품, 종자, 동물용 의약품 등에 생명지원 및 정보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관련 정책을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은 국내 농생명 분야를 이끌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접촉하고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그린바이오 벤

처캠퍼스의 성공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시는 범시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컨트롤 타워가 될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2023년까지 조성해 글로벌 농생명 바이오 산업 허브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익산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를 중심으로 동물산업과 그린바이오 중심의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혁신시켜 나가겠다"며 "농업이 다른 산업과 융합해 신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만큼 국내 최대 바이오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꾸준히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1388 재난심리 지원 특별상담실 운영

익산시는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을 위해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1388 재난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을 이달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특별상담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현장을 목격했거나, 사고에서 생존한 청소년들과 간접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대면 상담시 대기 없이 바로 상담하며, 1388 청소년전화를 통해 발견된 피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긴급 연계되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과 심리검사 및 특별지원을 제공한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 파쇄… 산불예방

익산시가 가을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18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산림인접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위험 예방에 나선다.

시 사업 대상은 산림과 이격거리 100m 이내인 인접 전·답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이다.

시는 파쇄기 3대와 산림재해

일자리 30여명의 인력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을 추진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을 진행해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 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나하나쯤이야 하는 미움보다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업무협약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수산식품안전성 강화 위해

군산시는 9일 수산식품 안전성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 안전관리인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등 대내외 수산식품 시장변화 대응을 위해 강력한 위생·안전 생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 기호의 능동적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오염원으로부터 안전성을 강화한 수산식품종합단지 조성을 초기부터 수산식품안전성 체질개선과

이로인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종합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손 잡았다.

두 기관은 이날 시청 4층 면담실에서 실질적 협력을 위한 실무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시 수산분야 특화 식품·제조분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HACCP 기술지원 및 새만금수산식품수출기공종합단지 입주기업의 HACCP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협약을 맺었다.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은 새만금사업으로 위축된 수산업 활성화와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산식품 R&D 연구 및 스마트HACCP 기반으로 미래 고부가가치화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 수산가공 특화 연계 스마트 위생안전관리체계(HACCP) 구축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자문 등 협업을 이룰 방침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수산분야 스마트 HACCP 특화육성을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스마트수산기공종합단지의 성공과 미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 수산물 수출전략기지로 육성 및 수산업체 고도화와 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행사

군산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텃소중립 실천 홍보와 도시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관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식물을 기르는 '식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 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을 정화해 실내 환경을 페

적하게 하는 반려식물의 유용성 홍보와 생육·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갈이 체험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찾아가는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행사 대상은 시민공고를 통해 선정한 아파트 4개소다. 지난 2월과 4월은 내홍동 711아파트, 대광로제비암아파트에서 진행했으며 9월과 11일은 수송제일오부그란데, 삼학주공아파트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빈 화분을 단지 내 행사장에 가져

와 공기정화식물을 직접 식재하고 물 관리 온·습도 관리 등 반려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실내식물 유지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소 실외 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